

#Savethe**LOTTE**

한국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2025년 회고

2026년 3월 30일

롯데경영정상화를 위한 공개자료

Part 1

배경 정보

대표자 메시지	4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대하여	5
현재 계류 중인 주주대표소송 관련 보도 및 발표 자료	6

Part 2

2025년 회고

1. 한국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 현황 (2025년 12월기)

(1) 한국 롯데그룹 전체 주요 이슈	10
(2) 롯데지주	12
(3) 롯데쇼핑	13
(4) 롯데케미칼/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14
(5) 롯데건설	15
(6) 호텔롯데	16

2. 2025년 주요 이슈

(1) 한국 미디어의 재벌·총수 신뢰도 조사	18
(2) 부산 롯데월드의 실패	20
(3) 신용 불안으로 인한 한국 증권 시장의 동요와 피해자 불기소	21

Part 1

배경 정보

사랑받는 롯데를 향해

롯데 창업자인 신격호는 1948년, 물자가 부족하고 고생을 많이하던 시절, 당시 드물던 껌을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껌 제조·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독일의 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를로테의 애칭 ‘롯데’를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롯데를 창업한 후, 날마다 상품 개발에 공리와 연구를 거듭하고, 창업자 스스로 자전거로 발이 닳도록 상점을 돌아다닌 결과, 많은 소비자분들과 거래처 분들께 인정받아, 많은 직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지지, 거래처와 직원들의 협력으로 종합 제과업체로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격호의 퇴임 이후, 신동빈은 한국 롯데그룹에서 형법상 유죄판결을 받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을 스스로 저지르고, 한국 그룹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한국 롯데그룹 전체의 실적을 크게 훼손시켜 왔습니다.

한편, 신동빈은 명목뿐인 임원직을 과도하게 겸임하며 한국 자회사 7개사에서만도 약 21억 엔 상당의 부당한 보수를 취득하는 등 롯데그룹을 사유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의 추락은 주로 신동빈의 롯데홀딩스 전체에서의 법령 위반과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포함한 극히 부적절한 경영에 기인한 바가 크며, 그 책임은 전혀 추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롯데 창업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강하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향후 롯데의 경영정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본 자료의 공표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주식회사 광윤사 대표이사 사장 신동주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대하여

Part 1

배경 정보 | #Savethe LOTTE

대표자 | 신동주

- 아오야마가쿠인대학 이공학부 졸업.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대학원에서 경영공학 과정을 수료한 후, 미쓰비시상사 근무를 거쳐 롯데그룹의 판매 자회사인 롯데상사에 입사.
- 채산성이 악화된 미국 공장의 재건, '가나초콜릿'과 '유키미다이후쿠'의 컨셉 재개발 및 TV CF 제작 등 리브랜딩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롯데의 브랜드 전략을 총괄.
- 롯데HD 부회장을 거쳐, 현재는 롯데HD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사 사장이자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의 대표. 롯데HD·한국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는 부친에 해당.

광윤사에 대하여

- 롯데 창업가의 자산관리회사이며, 롯데HD의 약 28%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대하여

- 신동주 및 신격호가 롯데HD에서 부당하게 내쫓긴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

최신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공식 블로그
<https://www.l-seijouka.com/blog>



- 「신동주」 공식 X
@hiro_shigemitsu



- 2025년 7월 롯데HD 및 해당 이사들에 대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관련 보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창업자 장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2025/7/4 18:09 교도통신

[롯데HD 전 부회장이 주주소송 회장 등에 144억 엔 청구 - 도쿄지방법원](#)

2025/7/4 18:55 지지통신

["그 유언장은 진짜일까" 동생을 고소한 롯데 전 부회장이 모든 것을 말한다, 자신의 해임극의 이면·형제간 격차·호적 문제...](#)

2025/7/8 5:22 다이아몬드 온라인

- 또한, 주주대표소송 관련 보도자료 및 설명 자료(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홀딩스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대하여](#)

2025/7/4

[롯데HD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관련 설명 자료](#)

2025/7/4



Part 2

2025년 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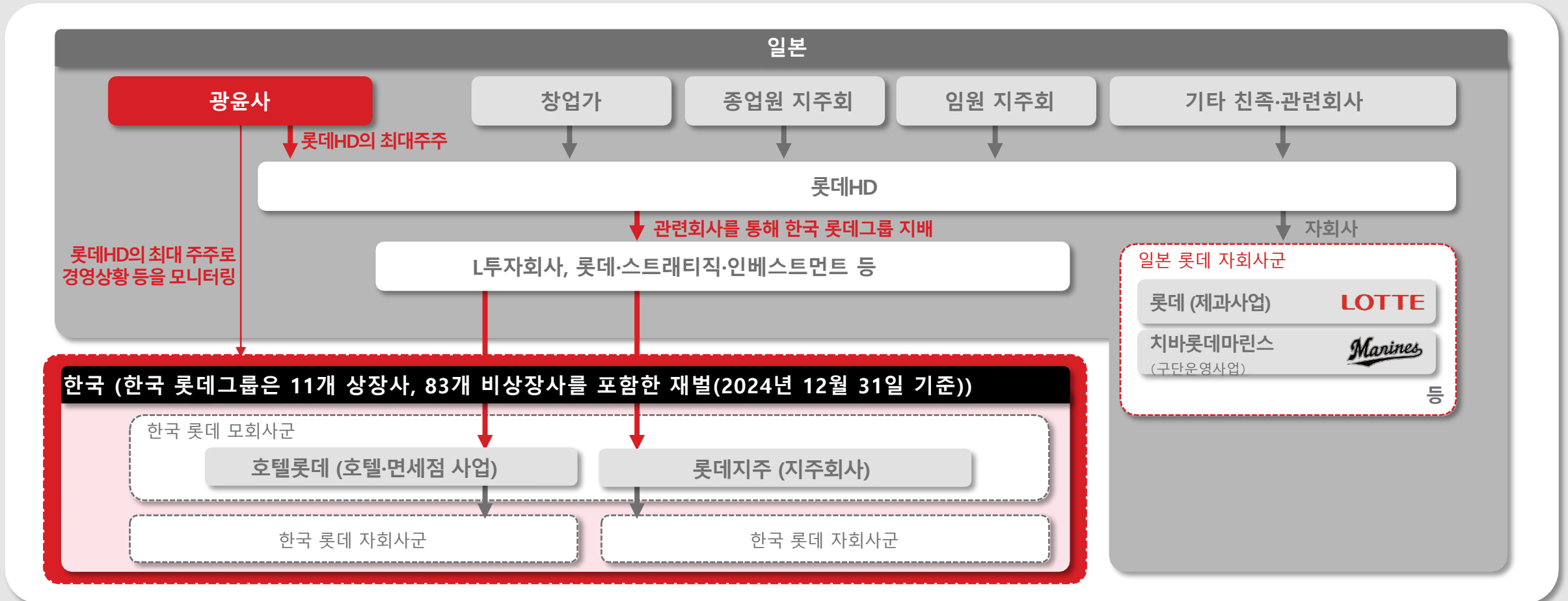
1. 한국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 현황 (2025년 12월기)

[참고]롯데HD 및 한국 롯데그룹에 대하여

Part 2

2025년 동향 | #Savethe LO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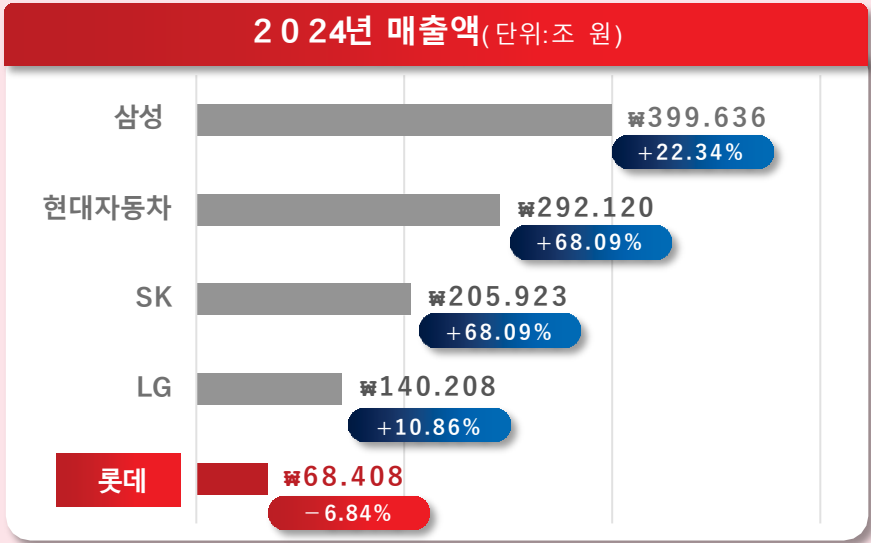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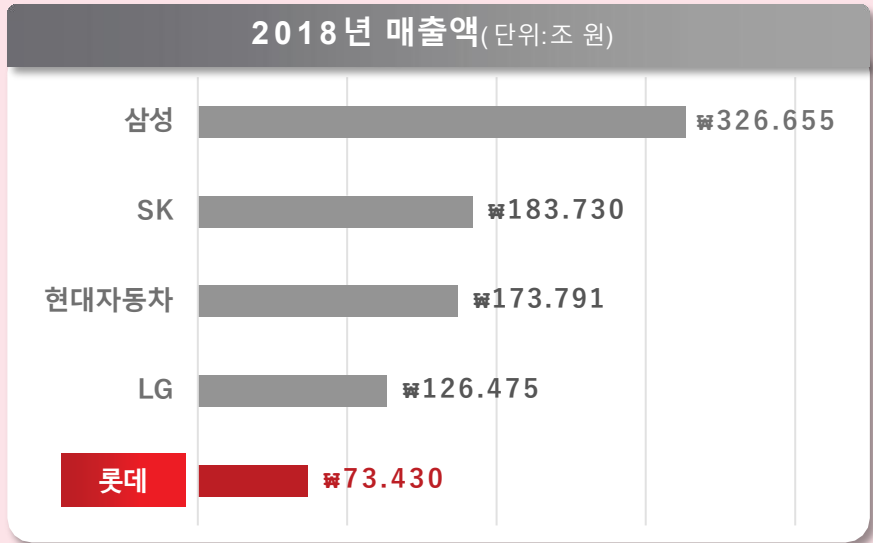
- 한국 롯데그룹은 호텔롯데(호텔·면세점)와 롯데지주(지주회사) 2개를 핵심 자회사로, 롯데쇼핑(소매·유통), 롯데케미칼(석유화학), 롯데웰푸드(식품·제과) 등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집단입니다. 창업자 신격호가 일본에서 창업하였으며, 이후 한국에서도 사업을 전개·확대하였습니다.
- 자본 관계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본에서 과자·아이스크림 제조·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롯데와 프로야구단 주식회사 치바 롯데 마린스의 모회사인 롯데HD가, 관계회사 등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각사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 현재 롯데HD 대표이사 회장, 한국 롯데그룹 회장은 창업자의 차남인 신동빈이 맡고 있습니다.



(1) 한국 롯데그룹 전체 주요 이슈

- 한국 보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동빈이 경영 수장이 되어 경영 혁신을 위해 'Value Creation Meeting(VCM)'을 도입한 2018년 이후 7년간, 한국 5대 재벌 중 롯데만이 매출 감소.
- 2018년에는 한국 재벌그룹 시가총액 순위에서 롯데그룹이 약 28조 5,000억 원으로 포스코와 5~6위를 다투었으나, 2024년에는 절반으로 줄어 시가총액 순위 19위로 추락.

① 한국 5대 재벌 중 홀로 부진 (2025년 7월 시점 보도)



- 한국 롯데그룹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실적을 남기지 못하고, 기업가치 훼손
- VCM에서는 경영전략이 제시되지 않으며, 매년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쁜 계열사 대표를 교체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다른 재벌그룹은 성장하고 있어, 외부 환경을 이유로 댈 수 없으며, 경영 책임이 무거움

②거버넌스 문제 (과잉검직·보수)

- 경영 수장 신동빈의 계열사 이사 과도 겸임 및 과도한 보수가 지적·비판받고 있음.
- 경제개혁연대는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재선임 의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또한 세계 3위 규모의 한국 국민연금공단은 신동빈의 롯데케미칼 이사 선임 의안에 2021년·2023년 기업가치 훼손 및 과도한 겸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계열회사	2024년 보수총액(억 원)			2024년 영업이익 (억 원)	전년대비 증감률(%)
	총액	급여	상여		
롯데지주	5.9	3.8	21.7	3,404	-31%
롯데쇼핑	19.6	17.2	2.39	4,731	-6.90%
롯데케미칼	3.8	3.8	-	-8,940	157.20%
롯데칠성음료	34.9	30	4.9	1,849	-12%
롯데웰푸드	2.6	22.2	3.8	1,571	-11.20%
롯데물산	13.9	11.8	2.1	940	-2.60%
호텔롯데	24.2	22.1	2	-455	적자전환
합계	216	179.4	37		

【경제개혁연대 코멘트 발췌】 (2026/2/5 공표)

- 경제개혁연대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효성그룹의 조현준 이사는 과거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재선임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또한, "각 회사의 이사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선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도 마찬가지로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선임에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다양한 그룹 계열사의 이사를 겸임하면서, 복수 회사의 '상근'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사로부터 상근이사로서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
- 공개되지 않은 비상장 그룹 계열사로부터도 마찬가지로 보수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롯데지주(LOTTE Corporation) - 2025년 하이라이트

【2025년 12월기 실적】

- 롯데지주의 2025년 12월기 당기순이익은 6,152억 4,884만 원의 적자로, 전기에 이은 적자(전기는 9,460억 7,791만 원의 적자).
-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약 30% 감소한 2,394억 원(전기 3,404억 원).

【부회장 '전원' 교체의 충격】

- 2025년 11월 말, 신동빈은 그룹 부회장 4명을 전원 교체하고, 계열사 대표 62명 중 20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 쇄신을 단행하였다. 가장 경영 책임이 무거운 신동빈만이 유임된 결과이다.
- 2022년 11월에는 외부 전문가를 임원으로 등용하였으나, 이번에는 내부 인재를 등용하였다. '지금까지 잇따른 외부 영입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사업별로 부진한 성과에 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현지에서 보도되었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

- 2022년에 도입된 '헤드쿼터(HQ) 체제'는 이번에 철회. 각 사업회사가 실적에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었다.
- 또한, 2017년에는 '비즈니스유닛(BU) 체제'를 도입하였다. 유통, 화학, 식품, 호텔·서비스 등 4개의 BU를 조직하고, 각 BU장이 해당 사업군의 경영을 통괄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후 2022년에 HQ제로 이행하였으나, 결국 조직만 바뀌었을 뿐 효과는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력 사업 부진】

- 한국 롯데그룹의 주력 사업은 식품, 유통, 화학, 호텔 등이지만, 특히 화학과 유통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

롯데지주 한국 롯데그룹 내 위상

롯데지주

주요 자회사군

롯데쇼핑 (백화점업)

롯데케미칼 (석유화학업)

롯데웰푸드 (검·제과·빙과류 등 제조·판매업)

롯데칠성음료(음료·주류 제조·판매업)

연결 자회사·관련회사군

한국 국내 회사

해외 회사

롯데쇼핑 - 2025년 하이라이트

【당기순손익 부진 지속】

- 그동안 롯데쇼핑은 영업손익은 흑자 기조이지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2017년 이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다.
- 2025년 12월기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외부 환경 요인으로 롯데쇼핑의 매출액이 회복되어, 순이익은 전년의 9,941억 원 적자에서 736억 원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이커머스】

- 2018년에 시작된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사업(2020년에 '롯데온'으로 공식 론칭)은 2020년까지 매출액 20조 원을 달성한다고 했으나, 2024년 매출액은 1,198억 원으로 당초 목표의 약 0.6%에 그쳤다. 또한, 과거 보도를 종합하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으로 약 6,406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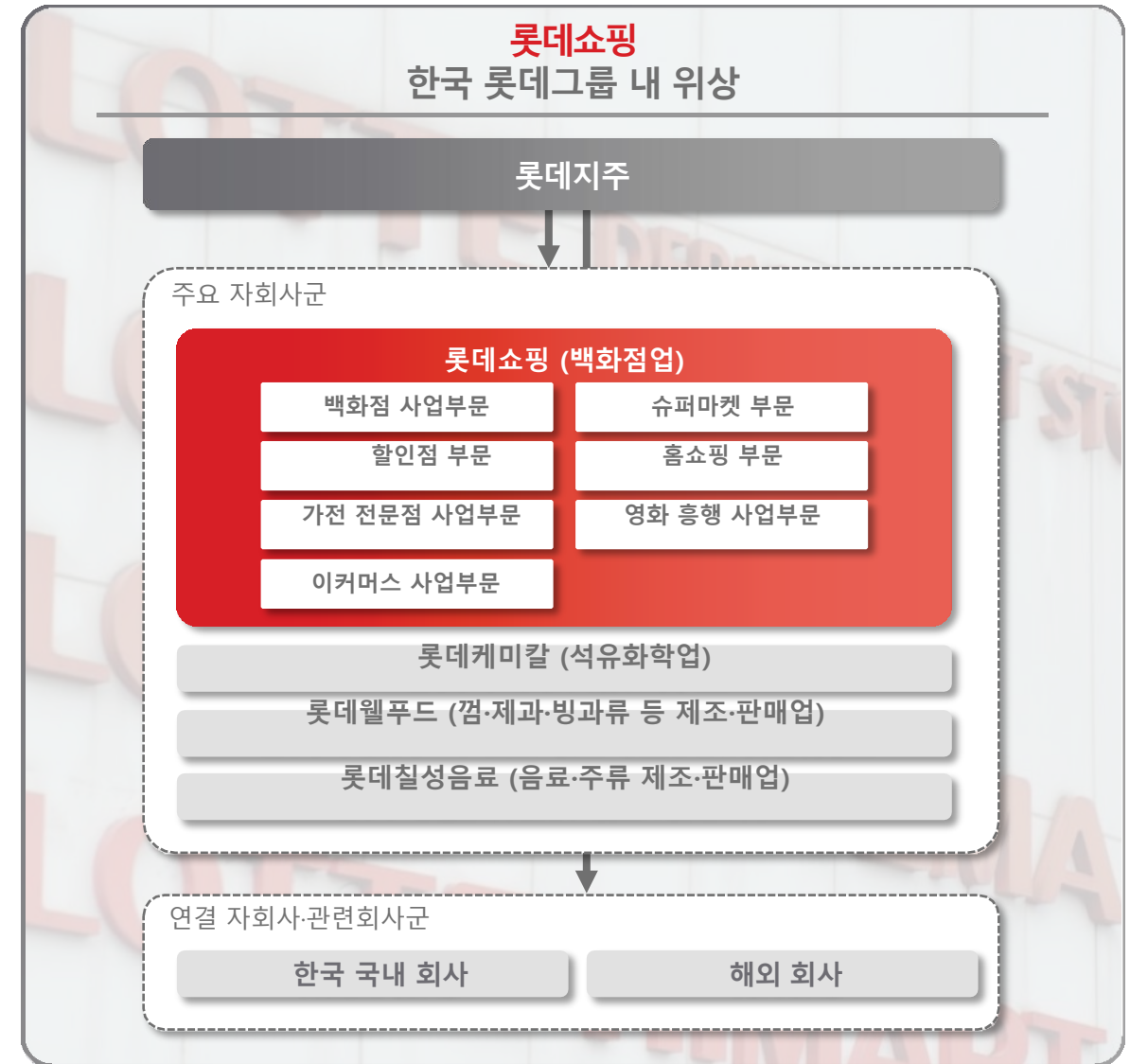
【가전 전문점 사업】

- 롯데하이마트는 소비자 대상으로 전자기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롯데쇼핑이 2012년에 하이마트 지분 65.25%를 약 1조 2,480억 원에 인수하였으나, 당시에 차입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다.
- 지난 5년간 하이마트의 매출은 2020년 4조 517억 원에서 지난해 2조 3,56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인수 당시 9만 원대를 기록했던 하이마트 주가는 현재 9천 원 이하로 하락하여 약 90% 폭락. 신동빈이 추진한 레버리지(차입) 기반의 인수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백화점 사업】

- 1999년에 개업한 롯데백화점 분당점은 롯데백화점의 경기도 첫 번째 점포로, 한때는 지역을 대표하는 백화점이었으나, 인근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이 개업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2026년 3월 폐점이 결정되었다.

롯데쇼핑 한국 롯데그룹 내 위상



롯데케미칼 - 2025년 하이라이트

【주력 사업 부진】

- 롯데케미칼은 기존에는 우량기업이었으나, 세계 시장의 성장 정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외부 요인에 더해, 범용품 비중이 높고 자사 제품의 진부화 등 경영전략 실패로 채산성이 악화. 영업손익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계상하고 있다.
- 2025년 12월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7.1% 감소한 18조 4,830억 원이 되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 악화되어 9,436억 원의 적자, 당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19.8% 악화되어 2조 4,901억 원의 적자가 되었다.

【고기능 소재 개발을 게을리한 대가】

- 롯데케미칼은 그동안 기초소재에 집중하였으나, 외부 요인의 변화와 실적 저하를 받아 기초소재는 감산하고 고기능 소재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 그러나 고기능 소재 분야에서는 국내외 경쟁기업이 이미 앞서 있어, 감산에 따른 매출액 축소, 수익성 저하, 롯데케미칼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적 부진에 따른 잇따른 자산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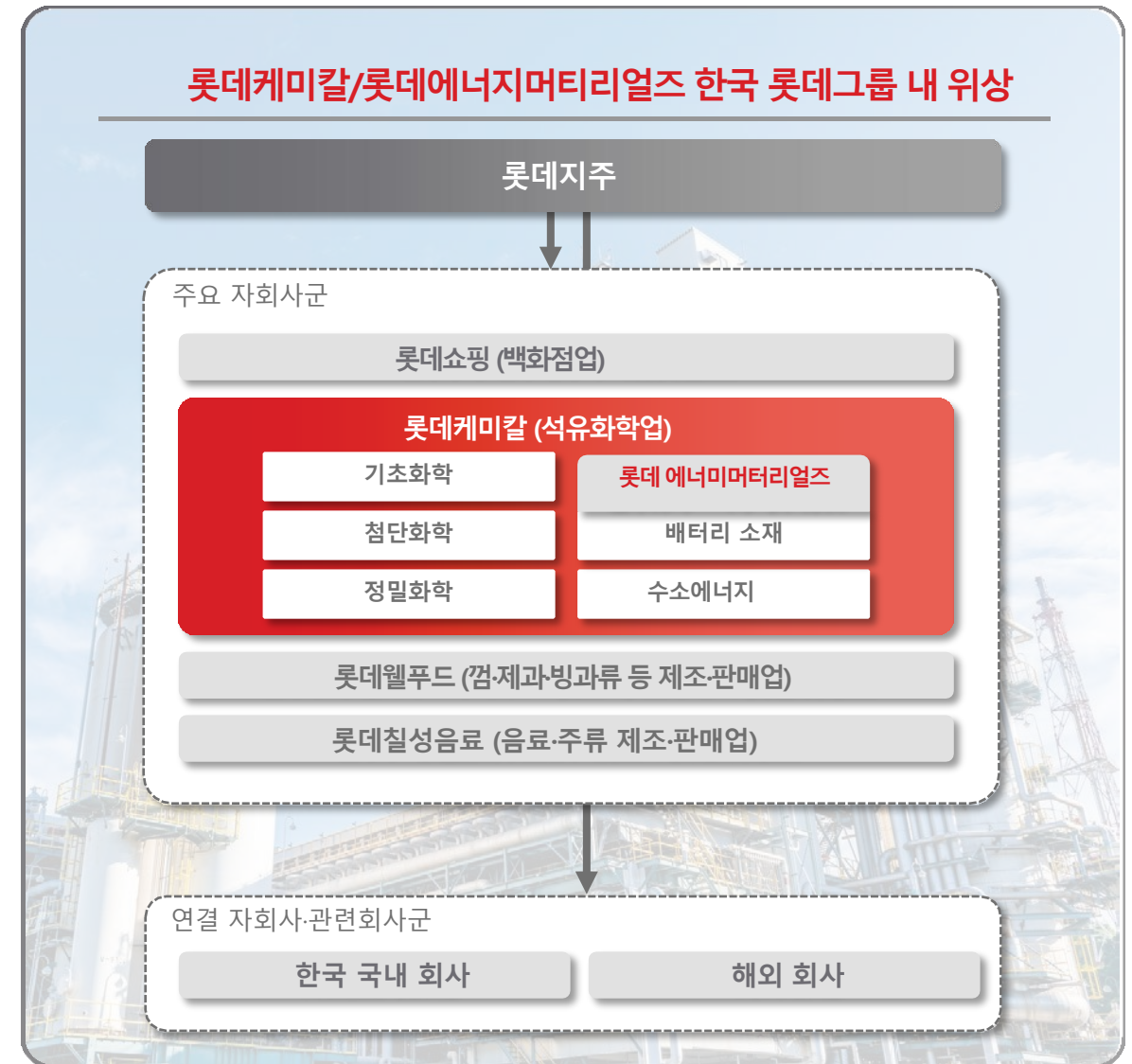
- 2024년 12월기 롯데케미칼의 부진을 받아, 2025년 2월에는 파키스탄 현지 법인 보유 지분을 979억 원에 매각하고, 2025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지분의 일부를 활용해 6,500억 원을 조달하였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 2025년 하이라이트

【실적 악화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9% 감소, 적자 기록】

- 2023년에 인수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구 일진머티리얼즈)는 2025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4.9% 감소한 6,775억 원,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다.
- 공장 가동률 하락과 판매량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장 운영 등에 따른 필수 고정비 부담으로 적자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롯데케미칼/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한국 롯데그룹 내 위상



롯데건설 - 2025년 하이라이트

【주력 사업 부진】

- 롯데건설의 3분기 결산(누계)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5조 8,372억 원, 영업이익(누계)은 920억 원으로 흑자이지만 전년 대비 43.6% 악화, 당기순이익(누계)은 321억 원으로 흑자이지만 전년 대비 43.4%로 어려운 결과를 보였다.
- 또한 롯데건설의 2025년 1~10월 해외 신규 수주액은 285만 달러(약 42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3.7% 급감.

【롯데건설 부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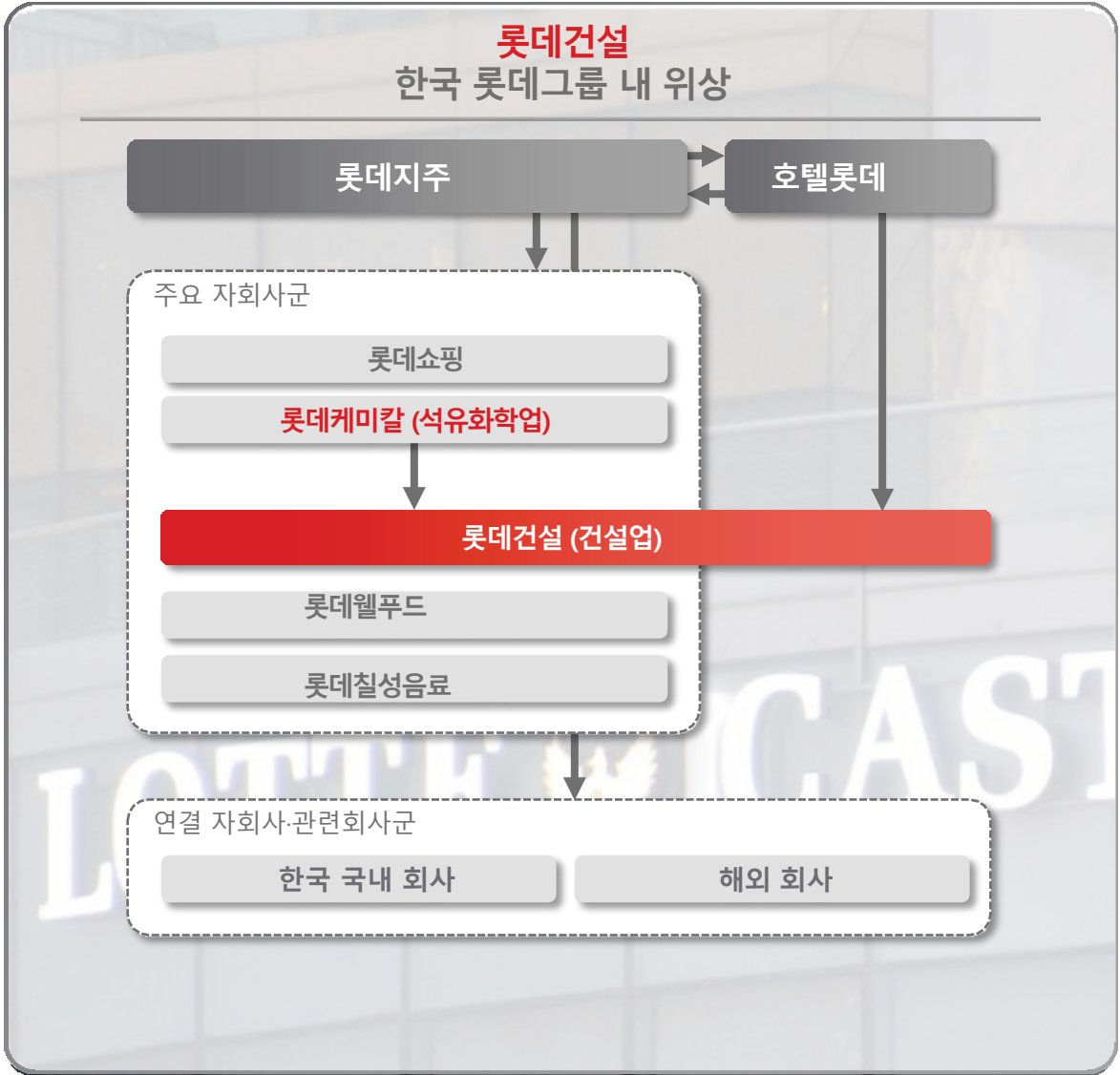
- 지난해 11월에는 롯데건설의 부도가 소문이 돌아, 모회사인 롯데지주의 주가가 급락하였으나, 롯데그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였다(자세한 내용은 p.22 참조).

【건설한 고급 아파트에 시공 불량 의혹】

- 보도에 따르면, 서울 잠실 지역의 고급 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이 SNS를 통해 결로와 누수 등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있다.
- 2026년 1월 5일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항의 활동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주방 설계 변경과 자재 등급 하향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 '최근 롯데건설이 하이엔드급 브랜드를 내세워 재개발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시공 불량 및 각종 의혹은 롯데건설에 타격이 되는 사안'이라고 한국 현지 미디어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에 의한 조사】

- 한국 국세청에 의한 롯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부상하고 있다.
-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국세청은 2026년 1월 29일 예고 없이 롯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압수하였다. 국세청이 롯데건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도되었다.
- 이번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통상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이 아닌, 비정기적이고 특별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인 동청 조사4국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호텔롯데 - 2025년 하이라이트

【호텔롯데가 막대한 자금을 계열사에 투입】

- 호텔롯데는 ①지난해 롯데건설의 유동화 특수목적법인에 1,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대출 제공, ②만기가 다가온 롯데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여 단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성된 2조 원대 규모의 공동 펀드인 '프로젝트 살롯'의 1조 원을 초과하는 이자 자금 보충도 약속하였으나, 자금 조달이 난항을 겪고 있다.
- 더 나아가, 롯데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적이 없는 롯데바이오로직스에도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하였다.
-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호텔롯데의 신용등급을 AA-로 하고 있으나, 호텔롯데의 차입금 의존도는 실질적으로 BBB급 수준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이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의 얘기라고 보도되고 있다.

【좌초되는 자금 조달①: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 상장 철회】

- 롯데그룹의 물류 계열사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상장 철회로 인해, 재무적 투자자(FI)가 풋옵션(매도 권리)을 행사하기로 하여, 롯데지주와 호텔롯데가 이 풋옵션을 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투입된 호텔롯데의 자금은 약 800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좌초되는 자금 조달②: 롯데렌탈 매각을 공정위가 불허】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렌탈의 사모펀드(PE)로의 매각을 불허한 것으로, 매각을 통해 호텔롯데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약 1조 원 규모의 자금 유입이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호텔롯데의 부채와 계열 지원 상황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례 없는 결산 수치 오류】

- 호텔롯데가 주식 100%를 보유한 롯데면세점 싱가포르, 호텔롯데홀딩스 홍콩, 롯데호텔 아라이, 롯데호텔 블라디보스토크, 롯데월드 베트남 등 계열사 11개사의 순이익과 순손실을 거꾸로 공표하고, 적어도 6개월간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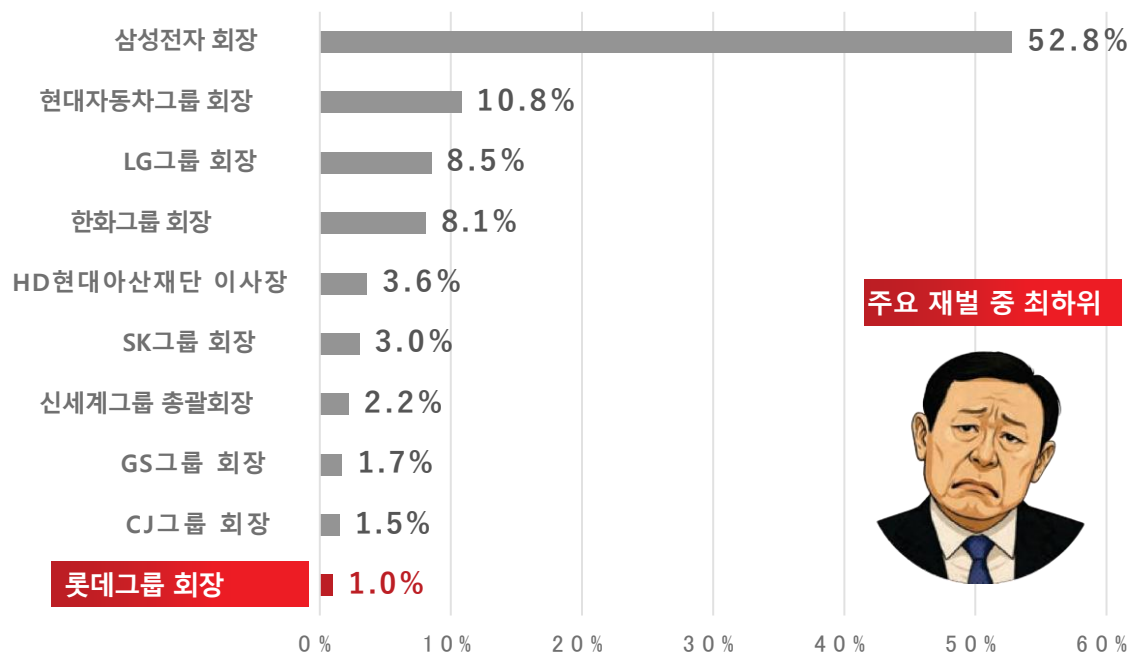


2. 2025년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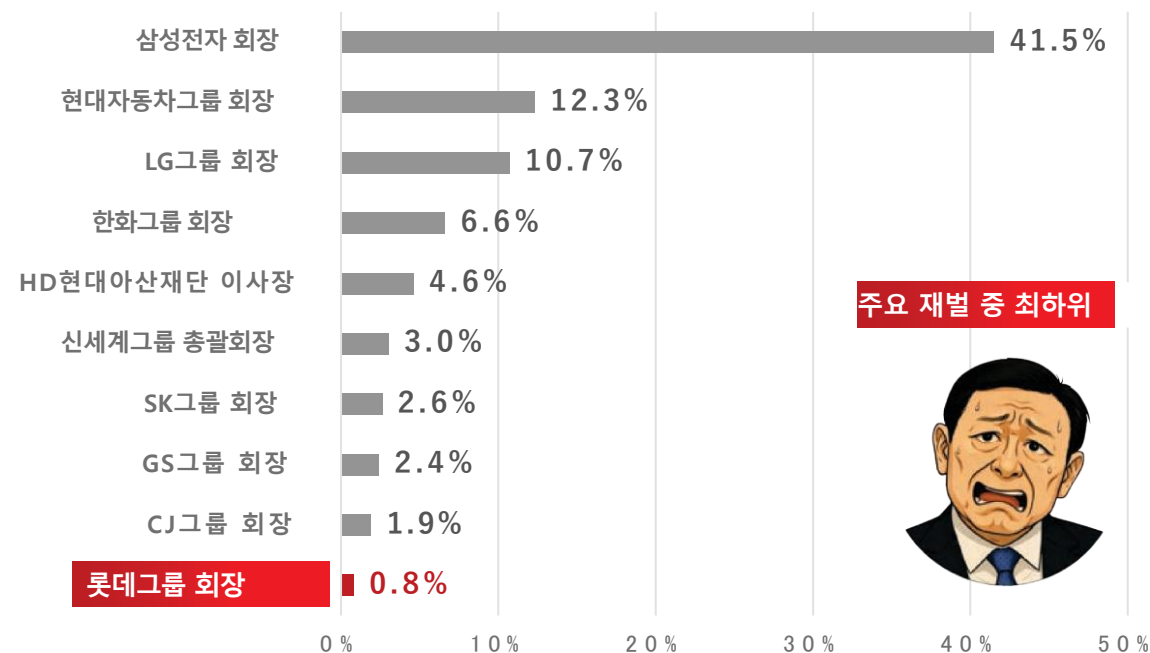
(1) 한국 미디어의 재벌·총수 신뢰도 조사 (1/2)

- 한국의 온라인 미디어 '뉴스토마토'가 지난해 12월 재벌 신뢰지수의 최신 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 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2025년 1분기에 이어 4분기 조사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재벌그룹·총수'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 한편, 한국 롯데그룹의 수장인 신동빈은 재벌그룹 총수의 신뢰도, 사회공헌도, 도덕성, 기업경영능력 항목에서 최하위입니다. 또한 이 수치들은 9개월 전과 비교하여 더 악화되었습니다.

10대 재벌 그룹 총수 신뢰도



10대 재벌 그룹 총수 도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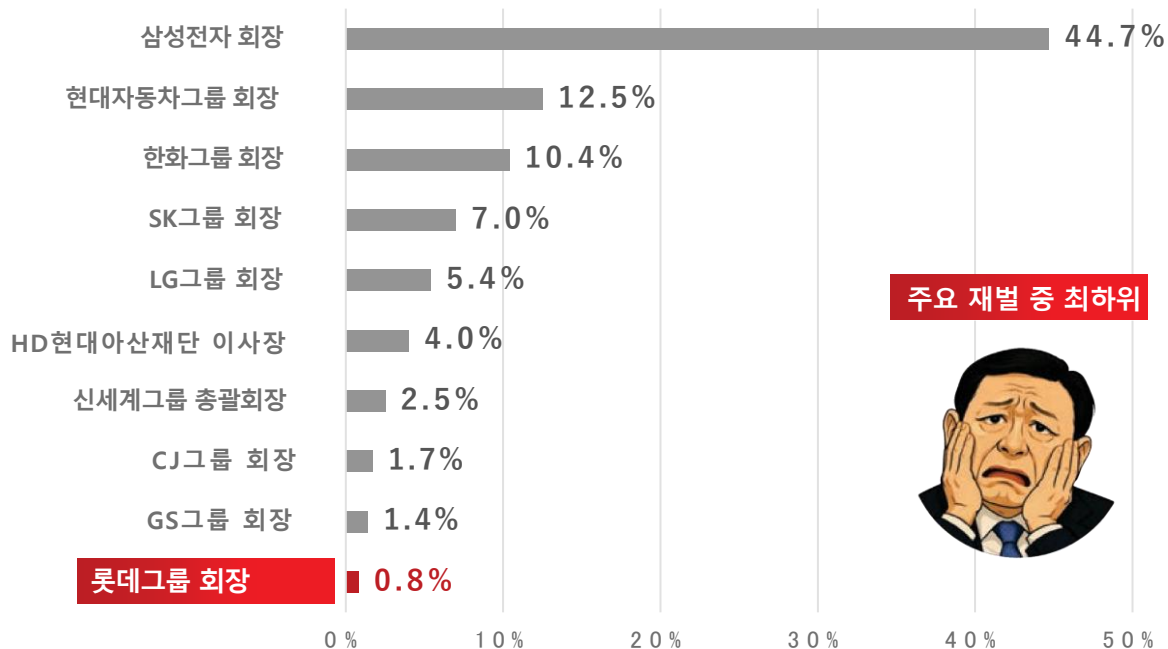


【기사에서 인용된 조사 개요에 대하여】 (인용 기사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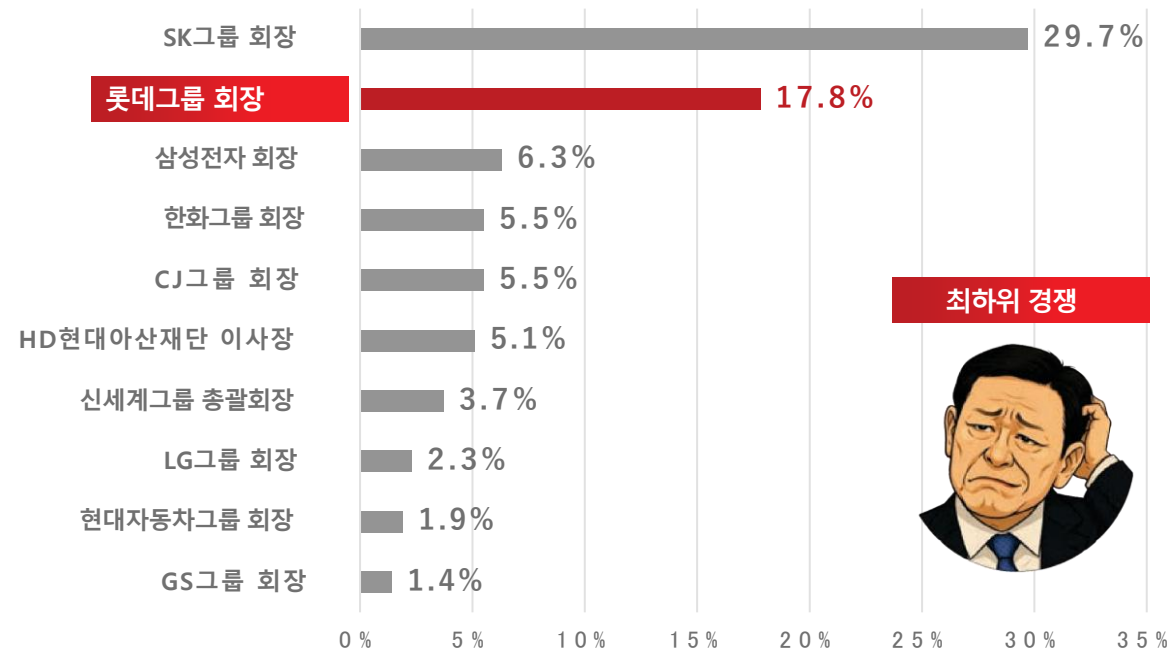
-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률은 1.6%입니다. 2025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하여 셀 가중을 적용.

(1) 재벌·총수 신뢰도 조사 (2/2)

10대 재벌그룹 총수 기업경영능력



10대 재벌그룹 총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



한국 온라인 미디어 '뉴스토마토'

- 2006년에 창설된 경제 전문 뉴스 미디어.
- 증권, 금융, 정치, 산업, 테크, 사회 등 폭넓은 분야의 뉴스를 커버한다. 2024년 10월에는 한국 검찰의 조작에 관한 탐사보도로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상을 수상한 실적도 있다.
- 창설 이후, 연합뉴스 등 국내 유수 미디어의 뉴스를 배신하는 독자적인 뉴스 포털 사이트와 경제 일간지 창간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2) 부산 롯데월드의 실패

- 개장 4주년을 맞이하는 부산 롯데월드의 실패가 보도되고 있다.
- 개장 당시에는 '신동빈의 히든카드 「롯데월드 부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당시 롯데월드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30년 이상의 테마파크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 롯데월드 부산에 대한 시각은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쇠퇴했다', '가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주말에도 한산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 현지 한국의 보도에서는, '롯데월드어드벤처 부산의 실패를 단정 지을 근거는 아직 없다.' '다만 주말 현장에서 목격된 한산함, 반복되는 할인, 축소된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수치 없는 설명은 명백한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객관적 지표다. 방문자 수와 매출, 손익 구조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일시적인 체감 문제"라는 주장도 검증할 수 없다.'고 엄하게 지적하고 있다.

부산 롯데월드



- 서울 잠실에 있는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전망대 등을 운영하는 롯데월드가 전개.
- 2022년 4월 한국 부산시에 오픈하였다.
- 개원 당시 15만 8,000m² 부지에
- 17종의 어트랙션을 갖춘.

2025년에 고장이 발생한 '자이언트 스윙' (MBC 뉴스)



(3) 신용 불안으로 인한 한국 증권 시장의 동요와 피의자 불기소

Part 2

2025년 동향 | #Savethe LOTTE

- 2025년 11월, 한국 롯데의 핵심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의 주가와 관련하여 신용 불안 소문이 주식시장에 퍼져 급락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 롯데그룹은 이를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하였으나, 한국 롯데그룹의 수년간 지속된 실적 악화로 인해 일정 수의 주주들이 그러한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입니다.
- 해당 소문에 대해 한국 롯데는 명예훼손이라며 유포자를 형사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한국 보도에 따르면, 한국 수사당국은 신용 불안 소문을 퍼뜨린 인물을 특정하였으나, 한국 검찰은 전단지 내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피의자를 불기소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롯데그룹은 신용 불안 소문을 유포한 자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한국 검찰이 '전면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함으로써, 한국 롯데그룹에 관한 신용 불안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다

#Savethe**LOTTE**